



목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마태복음 4장 17-25절

장명석 <<< 경주경안교회 담임목사

“나의 목회 철학”이란 제목의 원고청탁을 받고 기도 중에 조용히 40여 년의 목회를 돌아보며 나는 무슨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였나 생각해 보니 뚜렷한 철학 없이 목회해 온 것 같아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사실은 목회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목회란 다름 아닌 우리의 모범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본인의 목회 철학에 대해 허락된 지면에 몇 자 쓰고자 한다.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뜻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라는 하나님의 나라(천국) 복음을 선포 하셨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로 선포

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주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이다. 목회는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학설이나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인간의 뜻으로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목회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이 목회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데서 목회가 세속화, 이단, 사이비 등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목회는 주님을 따르는 것

이로써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확실해졌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목회를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회이다. 주님은 일평생 하나님 나라 목회자(목자)로 사역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4장 23-25절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이 소개된다. 그것은 바로 ① 가르치심(*διδασχῆ*) ② 전파하심(*κήρυγμα*) ③ 치유하심(*θεραπεία*)이다.

목회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주님께서 하신 목회를 뒤따르는 것이라면, 목회자는 주님처럼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행해야 한다. 이것을 잘 행할 때 균형 잡힌 목회가 되고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되며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행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이 깨어진다. 가령 가르치기만 계속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사데교회처럼 죽은 교회(계 3:1-3)가 될 것이고,

가르침 없이(성경지식) 복음의 능력만 말하면 고린도교회처럼 혼란과 분쟁(고전 3:3)이 계속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교육)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병 고치기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은 이상한 사머니즘적 형태로 흐를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잘 가르치고 선포하고 약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균형 잡힌 목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처럼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유하는 목회

주님께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무신 적이 없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각촌, 각 동네로 부지런히 다니셨다(눅 10:1-3).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다(계 21:4). 주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며 우는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잘못된 자를 가르치고 고치셨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마 4:17) 후속조치로(마 4:23-25) 가르치심과 병 고치심,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주님 되지 못하시고 메시아도 아니고 또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했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어가셨다. 그러므로 목회는 주님처럼 가능한 한 두루 다녀야 한다. 심방, 전도, 선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주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신 것처럼 시간만 있으면 교회 주변을 두루 다닌다.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형편에 따라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선포)도 하며, 병이든 의지든 가난이든 연약한 자를 만나면 기도하고 강하게 북돋운다. 주님께서 사역하신 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열풍

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요즘에는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갖가지 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기사를 보니 한 아이에게 선생이 열 내지 열두 명이나 된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학교 선생이 학교 선생, 학원 선생, 가정교사, 피아노, 컴퓨터, 태권도, 미술 등을 가르치는 선생에 비해 제일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이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딤후 3:14-17) 말씀대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주님의 사역의 또 하나의 핵심은 천국복음이다. 천국복음은 절대적 진리이기에 교육적으로 할 수 없고 선포(케리그마)되어야 한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도 안 된다. 천국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반면에 이 세상과 사람은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회개하라”, “믿어라”라는 명령형으로 선포되어야지 ‘어떻게 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설득해서는 안 된다. 복음 선포와 관련하여 한국 교회의 허약함이 여기에 있다. 한국의 강단이 천국복음 강력히 선포하고 성도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필자가 목회 중 가장 초라하고 민망함을 느낄 때가 병원에 심방을 가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밀려 물끄러미 환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다. 그럴 때면 목회자로서 목양해야 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히 13:8). 목회란 주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의지하여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살피는 것이 임무인 것 같이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때로는 한계도 느끼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약한 것과 병들 것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에 성실과 인내로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계속되는 주님의 목회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는 오늘도 계속된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여기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라는 말씀에 관심을 두면 주님의 목회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회자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주님의 목회를 돕는 자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현대 목회자들 중에 주객이 전도된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주님 제 목회 좀 도와 주십시오. 제가 소신껏 방침을 세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대로 밀고 나갈 것이니 도와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 만약 그 방침이나 자기 철학이 주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필자가 보는 성경적 목회는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주님의 목회(사역)를 따라 조력자로 주님처럼 두루 다니며, 가르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목회를 계속할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서 실천토록 할 것이다.

∴ **장명석** 영남신학대학교(Th.B.)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침례신학대학교(목회상담)에서 공부했다. 현재 경주경안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 설교를 위한 성서연구 · 구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레아의 하나님

- 창세기 29장 15-35절

김태훈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 구약학

●● 설교를 위한 성서연구 · 신약

세상의 구주 예수

- 요한복음 4장 4-42절

김춘기 <<<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